

### 1. 기다리는 사람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너희는 종이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지혜롭고 진실한 종이 되라'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매순간 던져야 할 질문은 '나는 하나님의 종인가'라는 질문일 것이고, 두 번째 질문은 '나는 지혜롭고 진실한 종인가'라는 질문입니다. 사실 이 두 개의 질문만 주기적으로 자기 자신에게 하고, 그리고 이 질문에 진지하게 답을 해가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 인생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해갑니다. 제 눈을 멈추어 세워놓은 구절이 있습니다. 36절 하반절에 나오는 '기다리는 사람'이라는 구절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다리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슨 뜻입니까? 36절에 나오는 '기다리는 사람'과 42절에 나오는 '지혜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연결이 됩니다. '기다린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프로스테코마이'라는 단어입니다. '프로스테코마이'라는 단어의 뜻은 '환대하다, 받아들이다, 성교하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인생을 이해할 때, 주인이신 예수님을 환대하고 받아들이며, 서로의 삶을 내어주고 받아들이는 기쁨을 누려가는 기간으로 삼으라고 말씀하십니다.

### 2. 지혜있고 진실한 청지기

오늘 본문에 보면 두 종류의 청지기가 나옵니다. 소유권을 이양해 드린 청지기가 나오고 자신이 소유권을 고집하고 있는 청지기가 나옵니다. '지혜있고 진실한 청지기'란 자신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잘 관리하고 자신에게 맡겨진 양식을 필요한 곳에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악한 청지기는 자신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막 대하고, 자신의 욕심을 위해 사람들을 이용하고, 또한 하나님이 맡겨주신 양식을 자신의 욕구를 위해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특기는 '위탁, 맡김'입니다. 하나님이 매순간 하시는 일이 무슨 일인지 아십니까? '사람과 재물을 맡겨도 될만한 놈' 찾는 일입니다. '사람과 재물 맡겨도 될만한 놈'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입니까?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입니다.

### 순모임 질문 (3월 31일 설교)

- 1) 이번 주 설교 내용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단어 하나를 말해보시고, 이 단어를 선정한 이유를 나누어주세요.
- 2) 제자들이 두려움으로 문을 잠그고 있었던 것처럼 요즘 내 삶의 두려움은 무엇인가요?
- 3)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셨듯이 나에게 주시는 사명은 무엇인가요?
- 4) 이번 주 설교 내용의 핵심을 한 단어로 표현해 보시고 자신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나누어보세요.

### ♥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

예수그린교회를 찾아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1. **예배 안내** \*새벽기도회(월-금) : 새벽 6:00 \*수요오전예배 : 수요일 오전 10:30  
\*금요기도회 : 금요일 저녁 8:00  
\*순예배 : 순별로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드립니다.
2. **2024년 표어** - "너희 자녀를 위해 올라"
3. **부활절 감사예배** - 오늘은 부활절 감사예배로 드립니다.
4. **성찬식** - 오늘은 성찬주일입니다.
5. **비전헌금** - 다음주는 비전헌금 주일입니다. 비전헌금은 선교사들께 보내드립니다.
6. **1/4분기 재정보고** - 4월 14일(주일) 2부 예배후 재정보고가 있습니다.
7. **매일성경 판매** - 가격 : 5천원
8. **오케스트라 단원 모집** - 바이올린, 첼로, 플룻, 피아노반에서 단원을 모집합니다.  
\*모임 : 토 오전 10시 (악기 무상 대여)
9. **예배 시청 안내** - 주일설교 및 새벽예배 실시간 참여가 가능합니다.  
\*참여방법 : 유튜브에서 '예수그린교회' 검색해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 선교지 소식

#### 오테기 선교사

비자문제가 해결되어 거주하는데 어려움이 없게 하옵소서. 맵기열로 고생중인 전미진 사모가 건강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 ... 예수 그린의 비전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며 예수님의 삶과 인격을 닮아 온 세상에 바른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간다.

#### ... 예수 그린의 사명

예수 그린의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안에 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며, 세상의 유일한 희망은 예수님의 교회임을 자각하여 교회를 세우는 사람으로 살아가고자 한다.



